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9 월 호 독 자 후 기



강경숙(고양시 일산동구)

공원에 구급함이 설치되면 정말 잘 된 일이란 생각 먼저 들었고 안심도 됩니다.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공원 전부 설치되면 참 좋겠습니다.



장혜진(고양시 일산서구)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인데 어려운 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기사를 보니 훈훈해졌습니다.



변금향(고양시 일산동구)

문예마당의 글을 읽으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자식에게는 내 모든 걸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임을 실감합니다.



이병화(서울시 노원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방콕만 하고 있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요즘, 어디로 가서 힐링할까 고민했는데 피크닉시민공원 소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호 문장의 신 당첨자

< 9월의 단어 >



임예환

코로나 시대, 깊어가는 가을꽃 향기는 잠시 잊기로 하고 영화예술의 달콤함에 취해 집콕생활을 버텨본다.

이승민

호수공원 가을꽃은 저마다의 달콤한 향기로, 앓던 얼굴 두 연인의 사랑은 한 편의 멜로 영화로, 이 가을 이곳의 모든 것이 예술 작품

코로나19, 그 긴 터널을 지나며

글 김시민(고양시 일산서구)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침 밥상을 가족과 함께 나누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탁 막혀오고 다리가 풀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딸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결을 받았다는 통보였다. 딸은 어제 직장 동료의 확진 판결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가족 모두 별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양성이라니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보건소에서는 즉시 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으로 방문하여 소독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였다. 나와 아들은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향후 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그러는 사이 확진자 이송차량을 통해 딸은 수원 병원으로 실려 갔다. 가족들도 이미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터라 잘 이겨내고 돌아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다.

문병조차 할 수 없는 딸과의 생이별 그리고 2주간의 자가격리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는 동안 가족 모두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소비하고 인터넷 주문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했지만, 쓰레기가 문제였다. 한여름 2주간이나 쓰레기를 방치하면 또 다른 세균의 번식이 우려되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보관하고 껍질은 햇볕에 말렸다. 가족 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식사도 각각, 종일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했다. 이웃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자가격리 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죄인 아닌 죄인 된 심정으로, 이 불행의 긴 터널을 지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통이란 누구든 원치 않는 일이지만, 고통 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값진 교훈이리라. 그래서 결심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가족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다.

더러 확진자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SNS 악플이 피해 가족들을 더 깊은 실의에 빠지게 한다.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가슴 깊이 남지 않도록 서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보듬어 주는 이웃과 공동체가 되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姆은 ‘우주는 서로 분리된 조각들이 모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나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엄혹한 현실을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잘 이겨나가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은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 딸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맑은 공기를 맘껏 마셔보길 손꼽아 기다린다.

